

스마트건설 얼라이언스 BIM 기술위원회
분과회의

결과 보고서

2024.05.28.

리딩기관 :



간사기관 :



1. 회의 개요

- 가. 명칭 : 스마트건설 얼라이언스 BIM 기술위원회 분과 회의(3차)
- 나. 일시 : 2024.05.24(금) 15:00~17:00
- 다. 장소 : 건설회관 3층 대회의실
- 라. 주관 : 국토교통부, 스마트건설 얼라이언스 운영위원회
- 마. 주최 : 리딩사/DL이앤씨, 간사/한국건설기술연구원, 빌딩스마트협회

2. 세부 일정

시 간	세부 내용	비 고
15:00~15:10 (10)	분과회의 참석자 등록	
15:10~17:00 (110)	<p align="center">'24년도 분과회의(3차) - 분과별 아젠다 회의</p> <p align="center">인력/교육 분과 (3층 대회의실) 분과장: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최은정 위원</p>	
	<p>■ 논의주제 : BIM 자격제도, 비전문인력 BIM 교육체계</p> <p>■ 세부주제 :</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BIM 자격/교육 관련 설문조사 결과(한국건설산업연구원 최은정 연구위원) 2. BIM 자격제도 현황(한국도로공사 조현배 차장) 3. 자유토론 및 의견수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BIM 자격제도 추진 방향설정 - BIM 교육 커리큘럼 레벨정의 	
17:00~	폐회	사회자

3. 참석자 현황

- 가. 참석대상 : 152개 기관
- 나. 참석기관 : 15개 기관(인력/교육 - 15개)
- 다. 참석 인원 : 18명(인력/교육 - 18명)
- 라. 참여기업 명단

[인력/교육 분과]

1	DL이앤씨
2	한국건설산업연구원
3	한국도로공사
4	한국건설기술연구원
5	한국도로협회
6	빌딩스마트협회
7	CJ대한통운 건설부문
8	건설기술교육원

9	금호건설
10	동부엔지니어링
11	동해종합기술
12	롯데건설
13	이안
14	현대엔지니어링
15	희림종합건축사사무소

마. 참석자 명단

[인력/교육 분과]

번호	소속	성명	직위	비고
1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최은정	위원	분과장
2	DL이앤씨	김규원	차장	리딩사
3	한국도로공사	조현배	차장	발표자
4	한국건설기술연구원	박승화	수석	간사
5	한국도로협회	류수지	연구원	운영위
6	빌딩스마트협회	최홍준	팀장	간사
7	CJ대한통운 건설부문	이정노	책임	
8	건설기술교육원	양재윤	실장	
9	건설기술교육원	김미림	차장	
10	금호건설	정진영	매니저	
11	금호건설	김민찬	매니저	
12	동부엔지니어링	이수현	사원	
13	동해종합기술	김종민	상무	
14	롯데건설	조동완	책임	
15	이안	윤상욱	팀장	
16	현대엔지니어링	안혜련	책임	
17	희림종합건축사사무소	최범균	책임	
18	희림종합건축사사무소	현경미	책임	

4. 회의록

분과위원회명	인력/교육 분과	분과장	최은정 위원
회의일시	2024.05.24. (금)	회의장소	건설회관 3층 중회의실
분과위원 침석현황	<p>분과장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최은정 위원 / 참여기업 DL이앤씨 김규원 차장, 한국도로공사 조현배 차장, 한국건설기술연구원 박승화 수석, 한국도로협회 류수지 연구원, 빌딩스마트협회 최홍준 팀장, CJ대한통운 건설부문 이정노 책임, 건설기술교육원 양재운 실장, 건설기술교육원 김미림 차장, 금호건설 정진영 매니저, 금호건설 김민찬 매니저, 동부엔지니어링 이수현 사원, 동해종합기술 김종민 상무, 롯데건설 조동완 책임, 이안 윤상욱 팀장, 현대엔지니어링 안혜련 책임, 희림종합건축사사무소 최범균 책임, 희림종합건축사사무소 현경미 책임</p>		
주요 논의 사항	<p>■ 논의주제 : BIM 자격제도, 비전문인력 BIM 교육체계</p> <p>■ 세부주제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BIM 자격/교육 관련 설문조사 결과(한국건설산업연구원 최은정 연구위원) (발표자료 첨부) ○ BIM 자격제도 현황(한국도로공사 조현배 차장) (발표자료 첨부) ○ 자유토론 및 의견수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재 강의 인력이 부족하다. 강사 인력양성이 필요하다. ▪ 강사를 할 수 있는 인력을 벤더사, 교수, 실무자로 보고 있는데 실무자들을 외부강사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 실무자들을 강사로 활용하기 위한 회사 인센티브 등 제도적으로 뒷받침이 필요하다. ▪ 제도로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강사 인력을 확보하는 방안이 가능해보인다. 교육 실적을 참여 실적으로 추가하는 등 가능해보인다. ▪ 자격증이 있다고 해서 모든 업무를 할 수 있도록 준비된 것은 아니다. BIM 자격증의 경우 실무가 가능한 수준으로 기대하고 있어서 자격증이 어느 수준까지 가야할지 고민이 크다. 자격증 취득이 힘들어서는 안된다. ▪ 플러스 자격 제도를 통하여 기존자격+스마트건설기술 같은 제도를 시범적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 자격시험에서 실습과 필기가 별도 구분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도구를 다루지 못하면 1급, 도구를 다루면 2급 같이 운영되고 있어 자격증을 취득해도 현업에서 수행을 못하는 경우가 있다. 아예 실습과 필기를 구분하여 별도 자격으로 분리하는 것도 좋을 것 같다. ▪ 교육을 통한 채용형 과정으로 산업계가 원하는 수준의 인력 양성이 필요하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BIM은 각 분야의 특성이 강해서 철도, 항만 등 분야를 넘어서 교육이 어렵다. ▪ 교육과 제도가 함께 정책이 필요하다. 단가에 대한 정책이 있어야 교육 비용을 투자할 수 있다. 인력채용 시 BIM활용수준을 연결해서 하고자 하는데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BIM자격의 필요성을 먼저 만들어줘야 한다. ▪ 채용 시 참고자료가 경력+자격증인데 BIM자격 보유자가 많지 않다. ▪ 초급인력 채용 시, BIM 관련 교육 수강자, 자격증 소지 여부를 본다. ▪ 자격증취득자가 2020년부터 급격하게 증가하였는데 한국도로공사의 평가지침 영향이 있다. 현재는 국가공인 진행 움직임이 있어서 증가세가 주춤한 상태이다. 정부 및 공공기관의 움직임이 있어야 한다. ▪ 현재 자격은 모든 분야에서 가능하도록 개발중이다. 한 분야 자격증이 있는 경우 다른 자격에서 일부 연계를 한다거나 기존 자격에 BIM을 밀어넣거나 하는 방안이 있다. ▪ 싱가포르에서는 오토데스크 자격증을 우대하지만 포트폴리오를 활용하기도 한다. ▪ 해외는 국가기술자격이 없기도 해서 상황이 좀 다르다. ▪ 싱가포르 공무원들은 건설 분야에 종사하지 않으려고 해서 해외(한국,일본)에 발주는 하는 경우가 있다. ▪ BIM으로 설계하는 경우 설계한대로 진행하지 않으면 큰 의미가 없어진다. 예를 들어 설계에서 크레인 위치를 그대로 사용해야 BIM설계가 의미가 있다. 일부 건설사 같은 경우도 설계와 동일하게 해야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고 잘못할 경우 귀책사유가 될 수 있다. ▪ 현재 BIM설계인력을 많이 보유하고 있지만 자격증을 보유한 인원은 거의 없다. 자격증이 큰 의미가 없다. ▪ 요즘에는 캐드 자격 취득자가 거의 없지만 캐드를 하는 인원들이 많다. ▪ BIM자격증에 대하여 개념에 대한 자격증인지 개념학습인지 고려할 필요가 있다. ▪ 어느 건설사의 경우 레빗을 주로 사용하는데 교육을 받은 인원들도 바로 수행하기 어렵다. 특정 프로그램을 사용하기도 하여서 설계 시작 전에 별도 2~3주의 교육이 필요하다. ▪ 인력수급의 측면, 양성을 위해, 능력판단을 위해 자격증이 필요하고 자격증이 공인화가 되면 BIM에 대한 관심과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생각한다. BIM학회 자격의 국가공인을 통하여 추진자격 이외에 다양한 자격의 가능성을 볼 수 있고 이미 공인 신청을 한 상태이므로 BIM기술위에서 고민할 주제는 아니라고 본다. 강사 수급문제는 국토부에서 교육을 지원하고 있는데 사내 강사는 당연히 유출이 불가할 것이다. 내부에서 교육과정을 만들고 내부 강사 육성을 위한 국가지원이 가능하다. 또 BIM클러스터에서 표준 커리큘럼을 만들고 있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 ▪ 국가자격은 공신력이 높으나 변화에 보수적이다. ▪ Bottom-up 시도 자체가 좋다. 좋은 결과가 있기를 기대한다. ▪ 기존 BIM자격이 국가공인을 받았을 때 기존 취득자에 대한 해결방안도 필요하다. 민간자격 제도상 공인 이전의 취득자는 재자격응시를 하거나 교육을 받아야한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확인이 필요하다. ▪ 다른 자격에서 비슷한 사례가 있었다. 민간자격이 국가공인을 받았고 국가기술자격이 된 사례가 있다. BIM은 PM과 비슷해서 CM기술사와 비슷하게 가지 않을까 생각한다. ▪ 회사입장에서는 지출이 크다. 자격 제도에 대한 빠른 결정이 필요하다.
향후 일정	미정

5. 행사 사진
(인력/교육분과)



-끝-